

내년 2월 STO 시대 개막… 증권사들, 주도권 잡기 총력전

미래에셋, 코빗 지분 97.15% 확보
한투, 코인원 지분 확보하고 협업
한화투자·삼성, 두나무 투자 확대

내년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디지털자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이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과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제도 시행에 앞서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 확보는 물론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등 사업 준비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래에셋그룹이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 지분을 97.15%까지 확보하며 사실상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거래소 명칭도 디지털 엑스(Digital X)로 변경해 그룹의 디지털금융 플



ChatGPT로 생성한 '증권사들이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와 토큰증권(STO) 사업 확대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 관련 이미지.

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산 관리(WM), 인공지능(AI),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연계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직접 거래소를 품기보다 코인원 지분 약 20%를 확보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사의 상품

설계 역량을 결합해 STO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6월 약 5978억원을 투입해 두나무 지분 3.90%를 추가 취득하면서 보유 지분율을 기존 5.94%에서 9.84%로 확대했다. 더불어 삼성증권과 삼성SDS, 삼성카드도 지난 5월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한 두나무 주식 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지분 2%, 삼성SDS와 삼성카드는 각각 1%를 확보했다.

거래소 지분 투자 외에도 디지털자산 사업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디지털자산 테스트포스(TFT)를 신설해 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검증에 착수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투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며 관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TFT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거래소 투자에만 머물지 않고 STO 시장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만큼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자산 수탁(커스터디),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주요 증권사들은 STO 시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증권은 거래

소 지분 투자보다는 발행과 유통, 결제, 보관을 아우르는 STO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큰증권 시스템을 고도화한 'KBSTOV2'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전통 금융자산의 온체인화를 준비하며 제도 시행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은 'STO 비전그룹'을 축으로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청산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DB증권은 지방자치단체 및 블록체인 기업과 협력해 실물연계자산 기반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TO 제도 시행 이후에는 단순히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넘어 어떤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유통·결제 인프라를 갖추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갖춰진 이후에 후발주자가 시장을 따라잡기 쉽지 않은 만큼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급락장 직격탄… 상장주 70%가 마이너스

7월 코스피 22.2%, 코스닥 21.4% ↓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 30곳 달해

지난달 국내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상장 종목 10개 중 7개 플로우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지난 6월 30일 대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1859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2645개)의 70%에 달하는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 566개로, 코스피 전체 종목(917개)의 62%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 전체 종목(1728개)의 75%에 해당하는 1293개 종목이 내렸다.

하락 종목 비율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았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황 피크 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와 증동 긴장 등

에 대거 휘청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01% 급등하며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고점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화된 측면도 있다.

지난달 한달간 코스피는 22.2% 급락했으며, 코스닥지수도 21.4% 내렸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휘청였던 지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지난 28일 코스피는 10.84% 급락한 데 이어 29일과 30일 각각 5.98%, 1.23% 내린 바 있다. 이후 31일 18%가량 급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 6월 말 종가(8,476.48) 대비로는 1,881포인트 넘게 낮은 상태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은 코오롱티슈진으로 86% 급락했다. 지난 6월 말 9만3600원이던 주가는 지난달 말 1만3000원으로 폭락했다.

뒤이어 더테크놀로지(-76%), 코오롱생명과학(-67%), 콘텐트리중앙(-67%), 스트라드비전(-65%), 저스텍(-64%) 등 순

으로 하락률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지앤이헬스케어로 222% 폭등했다.

이어 아이씨에이치(87%), 벡트(86%), 에넥스(85%), 조이웍스앤코(75%) 등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 상장사도 지난 한달 때 일 한국폴로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무려 30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8거래일간 19곳(줄스, 앤씨엔, 예선테크, 바이오인프라, 휴팩스홀딩스, 삼보산업, 씨엑스아이, 형지I&C, 바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조이웍스앤코, 유진테크놀로지, 파이온엑스, 핑거스토리, 나노씨엠에스, 바른손이앤에이, 답커머스, 썸에이지, 유디엠텍)의 공시가 한꺼번에 몰렸다.

/신하은 기자

서학개미, 美 증시 하락장에 50조 손실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 하락 영향 커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두달간 5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같이 레버리지 상품에도 많은 금액을 배팅하면서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7월 1~31일(조회일 기준) 서학 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46억 6862만 달러(6조7428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국내 증시가 6월부터 약세장이 지속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국장을 떠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6억3296만 달러)과 7월(46억6862만 달러) 두 달간 미 증시에 쏟아부은 자금은 53억 달러(7조6547억원), 그러나 평균손실은 약 50조원에 달했다.

지난 5월 말 2041억 달러였던 서학 개미의 미 주식 보관액(평균액)은 지난달 30일에는 1704억 달러로, 337억 달러(48조 6729억원) 증발했다. 손실액은 5월 말 평균액의 약 16.5%에 달한다.

이 기간 미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7580.06 → 7437.63)과 나스닥 지수(2만6972.62 → 2만5122.18) 하락률(1.88% 및 6.8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서학 개미들의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179억 달러) 주가가 같은 기간 29.1%(435.79달러 → 308.85달러) 하락한 영향이 컸다.

서학 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엔비디아(160억 달러) 주가도 같은 기간 7.6%(211.14달러 → 195.04달러) 내렸다.

특히, 국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미 증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큰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6~7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S ETF)로, 37억7486만 달러(5조4520억원)어치 사들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투 MTS, 고객 맞춤형 투자 플랫폼 진화

시세부터 ISA 관리까지 통합·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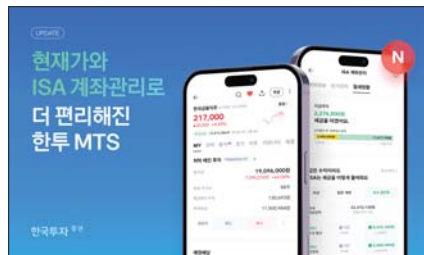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의 국내주식·상장지수펀드(ETF) 현재가 화면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리 기능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의 보유·거래 정보와 시세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투자 정보 탐색과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리서치 콘텐츠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 전달 방식도 다양화했다.

국내주식과 국내ETF 현재가 화면에는 'MY' 탭과 '요약' 탭을 새롭게 마련했다. 'MY' 탭에서는 해당 종목의 매수 평균단가와 매매 이력, 평가손익 등 고객의 투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잔고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재 시세와 본인의 투자 내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요약' 탭에는 당일 시세 흐름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등 종목 분석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모았다. 해당 종목을 편입한 ETF 목록도 함께 제공해 개별 종목에서 관련 ETF로 투자 정보를 확장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ETF 현재가 화면에서는 실시간 수익률과 함께 과거 분배 이력을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분배금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ETF의 가격 흐름과 분배 관련



한국투자증권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개형 ISA 계좌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고객은 모바일 앱에서 가입 정보와 서민형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만기 설정과 연금계좌 전환 신청, 누적 절세 현황 조회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경로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계좌 개설 이후의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개편 이후 이용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ISA 계좌 관리 화면 개편 이후 해당 기능의 월간 이용 고객 수는 개편 전보다 60% 늘었다.

리서치 콘텐츠의 접근성도 확대했다. 지난달 선보인 '읽어주는 글로벌 리서치'는 한국투자증권이 독점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리서치 자료를 음성합성 기술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다. 이동 중이거나 화면을 장시간 확인하기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리서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예탁결제원, 젊은 목소리 경영에 담는다

제6기 주니어보드 출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9일 노사가 입사 7년차 이하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제6기 '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원은 2021년 노사가 주요 현안에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주니어보드를 발족한 이래 노사 공동 워크숍과 유관

기관 견학 등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동우 노동조합위원장은 "주니어보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젊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